

‘2026 중등 수학교사 직무연수’ 운영

1기(개념기반 교육과정), 2기(에듀테크·AI 활용 수업) 중심 구성



터 처리) 이해 및 적용 등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교육과정 문해력 강화를 위해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지원센터(원장 현계명)가 중등 수학교사 100명(7수별 50명)을 대상으로 '2026 중등 수학교사 직무연수(1·2기)'를 운영한다.

4일과 11일 경기SW·AI교육지원센터(고양)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미래형 수학 수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반하여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4일 실시된 1기 연수는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주제로 개념기반 탐구 수업 설계, 하이러닝을 활용한 탐구학습 실천, 인공지능 수학(텍스트·이미지 데이

터 처리) 이해 및 적용 등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교육과정 문해력 강화를 위해 운영했다.

11일 진행되는 2기 연수는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을 주제로 'Canva AI', '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수업자료 제작, NotebookLM을 활용한 학습자료 설계, Snorkel을 활용한 학생 평가 및 피드백

실습 등 실제 수업 적용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모든 과정은 사례 나눔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사 간 협력적 학습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현계명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개념기반 수업과 인공지능·에듀테크를 접목한 미래형 수학 수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수년 묶인 화성·오산 경계 '상수도 미공급' 민원 해결 나서

수년간 지속된 경계지역 상수도 미보급 문제...도·시군 합동 대응 착수

경기도가 화성시와 오산시 경계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상수도 미공급 민원 해결을 위해 시군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상하수과와 화성시와 오산시 상수도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민원내용은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인근 약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공급 요청으로, 해당 지역은 화성시·오산시 경계에 위치해 지자체 간 협의 문제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곳이다. 이곳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해오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2019년 최초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추가 민원이 발생했으나, 상수도 설치 방식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화성시와 오산시간 견해 차이로 진척이 없었다.

특히 해당 지역은 황구지천과 제



2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지형이 불규칙하고 관로 매설이 어려운 여건으로, 상수도 공급에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민원 해결을 위해 2월 화성시와 오산시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연계한 도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화성시 문화배수지를 활용하는 최적의 공급 방안을 확정했으며, 설계 및 사업 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평택시,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 참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평택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엑스포에 평택시는 매년 다채로운 홍보관을 선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 평화도시' 이미지를 강조하며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 관광 도시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평택시는 올해 엑스포에서 평택8경의 주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트리아트 기술을 접목한 포토존을 운영해,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

칠 계획이다.

특히, 평택8경 도안에 나만의 색을 입히는 '업시 컬러링 이벤트'와 사회관계망(SNS) 연계 이벤트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평택시의 매력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평택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은 평택의 관광명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평택 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개장

광주시는 3일 경안동 산2-1 일원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광주 중앙공원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민간사업 시행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기념했다.

광주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추진된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전체 면적 44만㎡ 가운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해당 공원은 1993년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됐다.

총사업 면적 44만㎡ 중 34만㎡ 규모의 공원은 체합학습 공간인 '아람원', 시민 휴식 공간 '솔바람원', 생태예술공간 '가람원' 등 3개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시흥시, 세외수입·지방세정 평가 '꽤' 최우수·도약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도약상을 받았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도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행정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오르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 원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포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지방세정 전반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과 구제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인 점도 수상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분야 모두에서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부서별 책임징수제와 정기 점검 회의를 통해 징수율을 꾸준히 높이며 건전한 지방세정 기반을 다져왔다.

고양시, AI 기반 교통신호 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경찰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친 끝에 화정역 앞 화정로 7개 교차로에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AI 기반 교통신호 시스템은 스마트 교차로에 설치된 방향별 CCTV를 통해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신호 시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에 자동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정식 신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 맞는 능동적인 신호체계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단독 교차로가 아닌, 연속된 교차로로 이루어져 있는 도로축을 대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구간에서 차량 정체 최소화 및 통행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일 시작된 시범운영을 통해, 교차로 방향별 녹색시간을 최소 1초에서 최대 21초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 교통량이 적은 방향의 녹색신호 시간을 줄이고 교통량이 많은 방향에 녹색신호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교차로 신호 손실시간을 최소화하고 차량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고양시는 4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효과,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확대 적용, 실시간 AI 교통신호 시스템 네트워킹 운영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의정부시, 방치된 내대지 정원으로 탈바꿈



의정부시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정암동 368-2번지 일원(실의정원 동측 부지)에서 '2026년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암동 내 방치된 내대지(불법경작지)를 활용해 조성된 실의정원과 연계해 마련했다.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자산홍, 영산홍 등 관목류 식재와 급계구, 사스타네이지 등 야생초화류를 파종했다.

행사 대상지는 과거 관리가 미흡해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이다. 시는 지난해 서측 부지에 실의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동측 부지까지 정비를 확대해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단조롭게 방치돼 있던 내대지가 다양한 식생이 어우러진 생활정원으로 변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방치돼 있던 공간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연천군, 전곡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 보고회

연천군은 지난 2일 본관 2층 상강실에서 연천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련 부서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착수보고회 이후 도출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한 설계(안)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사업은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핵심 과제로, 전곡4리 일원에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선사유적' 콘텐츠를 접목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전곡읍민의 고상한 정체성을 시각화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흥미를 이끌어 간

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곡로 등 주요 7개 구간의 선사특화 가로조성, 3개 구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테마 골목조성, 소공원 및 게이트(관문), 이정표 등에 대한 선사 디자인 적용 등이 포함되며 특히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뿐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차 사업으로 전곡로 선사특화 디자인 가로등 교체 및 보행로 재포장, 전곡역 앞 불룩담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모든 구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농협 경기본부, 송탄농협서 생산자조직 활성화 교육 실시

애호박·방울토마토 재배기술부터 온라인도매시장까지..생산자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

농협 경기본부(총괄본부장 엄범식)는 지난 3일 송탄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송탄농협 '애호박·방울토마토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과정은 생산유통통합조직 전문품목 육성을 위해 애호박과 방울토마토 재배기술, 정부 중점 추진사업인 온라인도매시장 및 전자송품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엄범식 본부장은 "최근 기후 변화와 재배 환경의 변화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배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농협은 앞으로도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실천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



산자조직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탄 경기본부는 지난달 양주시 애호박 생산자조직 재배기술 교육에 이

어 이번 송탄농협 생산자조직 교육을 실시하며 품목 조직화와 전속축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꽃피는 봄 공원에서 즐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월 한 달간 도시공원과 수목원, 도심 주요 공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문화·생태·체육 활동을 확대해 공원을 일상 속 여가와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석공원 일원에서 4월 3일부터 12일까지 '2026 만석개 새빛축제'를 연다. 불꽃축제와 미디어아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봄밤의 즐거움을 더한다. 같은 장소 수원시립만석천서관에서는 10월 31일까지 '만석들썩 공원탐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유평공원 복합문화공간에서는 5월 17일까지 기획전시 '선 넘는 날'을 연다. 그림책을 주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인다.

빛찾기 시즌을 맞아 걷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수원화성 일원에서는 '빛



꽃 이야기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안공원에서는 '행동왕의 골목 여행'을 진행한다. 5일에는 화성행궁 일원에서 '수원 부활절 대축제'가 열린다.

수원시 아토피센터는 광고산 일원에서 생태체험과 자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림책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10일에는 일월수목원에서 '수원 수목원 가든음악회 (아트인사이드 7)'이 열린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정자공원과 일월호수공원에서는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책 소풍 북극극'을 운영한다.

대유평공원 등에서는 치매극복 걷기행사와 환경정화 줍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9일에는 광교역사공원에서 어린이 국악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4월에는 시민이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공원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바

송민수 기자